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 長崎平和資料館) 소장 기록물 연구*

남영주**

1. 서론

2015년 7월 5일, 나가사키 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 하시마는 메이지시대 근대산업시설물의 하나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 섬은 제2차 세계대전기간 동안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된 곳으로 침략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 정부는 하시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채일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승인받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하시마와 이 지역에 강제 노역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현재 일본은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시마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생존자도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강제 노역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하 평화자료관)은 주목할 만하다.¹⁾ 이 자료관은 “나가사키 채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가사키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의 증언을 기록화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 투고일자 : 2015. 11. 15 심사일자 : 2015. 12. 11 게재확정일자 : 2015. 12. 18

**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 <http://www.d3.dion.ne.jp/~okakinen/index.htm>(검색일:2015.07.01)

있다. 소장 기록물은 강제 동원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등 한국과 중국의 전쟁 피해 사례를 파악할 수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을 통해 戰時 민간인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전쟁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활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회복 및 피해보상 등 인권문제와 관련되는 기록물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기록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다.

하시마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중국은 일본군 난징대학살 사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²⁾ 2015년 10월 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는 '난징학살' 관련 사료가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함께 등재를 추진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은 등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언론은 위안부 관련 기록 등재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한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위안부 피해 국가들이 별도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전쟁피해와 관련된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후 70년을 맞아 그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이 많고, 이를 인류의 유산으로 전승할 필요성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이 전쟁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물 수집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히사마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 증거로서 평화자료관과 같은 기록관 발굴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기록물 수집 현황

평화자료관은 일본 내에서 전쟁책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자료관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인데, 우선 자료관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2)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01013338080262&outlink=1>
(검색일:2015.10.24)

본 자료관은 목사이자 나가사키 의회 의원이며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의 대표를 역임한 오카마사하루(岡正治, 1918~1994)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오카마사하루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기간 중 피해를 받은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인권운동가이다. 그는 일생 동안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였다. 그가 인권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이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1965년 한일조약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족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81년부터 조선인 피폭자의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원폭과 조선인』(『原爆と朝鮮人』 第1集~第6集, 1982~94年) 및 중국인의 강제노동을 고발한 『늑든 톱니바퀴를 돌리자』(『さびついた歯車を回そう』, 1994년)등을 출간하였다.

오카마사하루가 사망한 후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을 건립하였다. 평화자료관이 건립되는데 있어서 오카 씨와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는 전쟁피해자들의 권리를 복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카 씨가 사망한 후에도 평화자료관은 남경대학살증언집회 보고집(長崎と南京を結ぶ集い報告書)과 나가사키의 청년들을 우호방중단(友好訪中團)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의 보고집(日中友好・希望の翼報告書)등을 출간하여 전쟁 피해의 기억을 전승하고 있다.³⁾ 또한 평화자료관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나 기업 단체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하고, 평화자료관의 취지에 동의하는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관람객이 기부하는 기금에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다.⁴⁾ 1995년 10월 1일 개장한 평화자료관은 설립취지를 아래와 같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희생된 외국인들은 전후 5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아 왔습니다. 가해의 역사가 숨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는 없습니다.(중략) 당 자료관을 방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해의 진실을 알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후 보상의 실현과 非戰의 다짐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⁵⁾

3) 박수경·조관연,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 어문학』 vol.61, p.515, 2013.

4)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평화자료관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p.30, 2010.

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벌어진 어두운 가해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려서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성찰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즉 전쟁피해의 원인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평화자료관의 설립은 나가사키의 사회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전후5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장하면서, 피폭내셔널리즘으로 점철된 원폭자료관으로 탈바꿈하였다.⁶⁾ 이에 오카 씨는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일본의 사과 및 보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며, 그 결과 히로시마와 달리 나가사키 원폭공원에는 “조선인피폭자추모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⁷⁾ 국가가 기억하는 사실만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오카 씨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평화자료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⁸⁾

평화자료관은 1~2층이 전시실로 사용되며 전시물은 주제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본 자료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주제만 선별하여 아래 <표-1>로 정리하였다.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평화자료관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p.2, 2010;

<http://www.d3.dion.ne.jp/~okakinen/setumei.html>(검색일:2015.09.10)

- 6)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index.html>(검색일:2015.09.02.)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원폭에 의한 피해의 실상과 투하 경위 및 경과 그리고 핵병기 개발의 역사, 핵병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자료관 어느 곳에도 왜 원폭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 7) <http://www.d3.dion.ne.jp/~okakinen/oka/oka3.html>(검색일:2015.09.24)

- 8) 박수경·조관연,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vol.61, p.514, 2013,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이사장, 高實康穂의 답신 메일(2013. 3. 22) 재인용.

<표-1> 오카마사하루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상설전시 내용⁹⁾

구분	주제	전시내용
1층	朝鮮人被爆者 코너	· 조선인 피폭자 실태 · 조선인 피폭자 증언 전시
	強制連行 코너 〈飯場〉	· 탄광, 광산, 토목현장에 강제 연행되어 노역한 조선인들의 실태 · 三菱造船所に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이 거주한 마을의 해체 전 사진전시 · 탄광에서 사용된 도구, 잡지 등 · 노동자들의 식사 모형 · 強制連行· 強制勞動의 증언 * 坑口: 탄광 모형 전시
	사진으로 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조선편	· 조선으로의 야망 · 조선병합 · 독립운동탄압 · 민족성말살과 황민화 · 강제연행과 징병
계단	사진으로 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중국편	· 시기: 만철~만주사변 · 전시주제: 「南京」 / 「重慶」 / 「万人坑」 / 「731部隊」 / 「三光作戰」
	일본은 아시아에서 무엇을 했나?	· ‘대동아 공영권’의 미명 아래 아시아 각국에서 행해진 일본의 만행을 2층 전시장 입구의 벽면 모두를 사용하여 정리
	帝國主義란?	·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 했다는 일본의 침략 정당성에 대한 비판
2층	중국인 강제연행 코너	· 1999년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 실상조사회>를 결성해서 중국인 강제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전시
	皇國化教育 코너	· 내용: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을 인간 만들기 · 일본 내 皇國臣民 형성 과정을 잡지와 사진, 교과서 등을 통해 검증
	日本軍 慰安婦 코너	· 보상코너 · 정대협과 연합하여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전시 ·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가사키 집회 증언

9) <http://www.d3.dion.ne.jp/~okakinen/1kai/tizu.html>(검색일:2015.09.24)

	· 만화가 石坂啓가 위안부 문제를 그린 <突撃一番>이 A3로 확대하여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함
戰後補償 코너	· 일본인들에게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
岡正治 코너	· 본 자료관의 제안자인 오카 씨의 프로필과 유물 소개
岡文庫(書籍閲覧) 코너	· 오카 씨 장서의 일부: 「오카 문고」 운영 · 조선문제, 원폭문제 등 귀중한 서적이 많음 · 이곳에 전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비디오(VHS)를 다수 소유하고 있어서, 전후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용 · 필요에 따라 대여 내지 상영회를 개최 가능
南京大虐殺 코너	· 2000년 8월 본 자료관과 남경대학살기념관이 제휴, 이곳에 전시되어있는 사진은 난징 기념관에서 제공함
日本軍의 잔학행위	· 중국에서 일본의 침략에 따라 행해진 학살의 증거 사진
히노마루 · 기미가요 · 일본어	· 아시아 각 지역의 황민화 교육
端島・高島 코너 → 「徐正雨 氏 생애」 코너	· 하시마 소개: 나가사키 항 부근의 작은 섬. 1890년 미쓰비시의 소유의 석탄공급지. 1974년 폐광 될 때까지 최고급 숯을 생산. 이 작은 섬에 1945년 당시 5300명의 사람들이 거주. 그 중에는 다수의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이 존재. (일본의 패전 전후 하시마 거주 조선인은 500명, 중국인은 200명) · 나가사키시에 거주하는 徐正雨씨가 하시마에 연행된 과거를 증언
사망자 명부 (端島hashima · 崎戸sakito)	· 하시마· 사키토 소개: 미쓰비시의 광산 · 조선인 강제 노동 실태 소개 · 하시마· 사키토에서 사망한 조선인 명단: 오카 씨가 생전에 입수한 귀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변사, 압사, 자살, 익사 등으로 사망 기재 ¹⁰⁾

10) 이름, 출신지역, 나이, 사망원인이 기록된 하시마탄광 희생자 122명의 명부와 사키토탄광의 희생자 212명의 명부이다. 화장인허가증이 1986년 발굴되어 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노동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화장인허가증에는 사

<표-1>과 같이 평화자료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전시는 1층 2개의 주제 코너와 2층 8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층에는 1개, 2층에는 6개의 주제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1층 전시는 조선인 관련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일본의 조선침략을 1910년부터 시기별 주요사건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특히 조선인 피폭자 문제와 강제연행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飯場>(함바)라는 조선인들의 숙소를 재현하여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물건과 생활상들이 전시되어 있고,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청취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증언이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갱도 모형을 전시하여 당시의 참혹했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2층 전시는 일본의 중국 침략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인 강제 연행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대표적 사건인 남경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 학살사진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나가사키에서 행해진 강제연행에 관한 내용을 사망자 명부와 함께 전시하고 있는 점은, 이 자료관이 나가사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로컬기억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아래 행한 아시아 침략의 허구를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설립자 오카 씨를 위한 코너로 그의 일대기와 업적에 관한 전시 그리고 오카 씨가 기증한 서적으로 마련된 <오카문고>가 있다. 전후보상 코너는 오카 씨 일생의 노력이 집약된 부분으로 이 자료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이 평화자료관은 1931~1945년 동안 일어난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본 자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기록물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시의 대부분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전쟁피해 실태와 전후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평화자료관이 일본 최초로 전후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평화자료관은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강제 노역된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증언기록은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물로 판단되며, 본 자료관이 로컬 자료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내용의 기록물이 전시되고 있다. 일본의 가해사실에 대한 전시내용, 특히 ‘대동아공영권의 허구’라는 전시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관은 일본인들을 위한 역사교육의場이기도 하다.

망원인을 적게 되었는데, 단적으로 일본인에 비하여 조선인의 사망원인이 變死로 제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軍艦島に耳を澄ませば, p.115, 2012, 참조.

평화자료관의 전시 기록물로 볼 때 이 자료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전후보상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따라서 <전후보상>과 <端島·高島 코너-徐正雨 氏 생애>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인데, 관련 기록물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자료관에서 출간한 연구 성과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전후보상> 코너의 주요내용은 3장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 1은 1992년 나가사키에 강제 연행된 김순길 씨가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무책임론, 미쓰비시중공업은 별회사론(別會社論)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상고 기각된 과정까지를 소개하고 있다. 패널 2는 재외피폭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재판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패널 3은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미쓰비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보상을 요구한 정황을 소개하였다. 개인적 차원의 보상요구는 일본정부가 전쟁책임을 질 것은 물론이요, 전범으로서 미쓰비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端島·高島 코너>는 徐正雨 氏 생애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홈페이지는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는 서정우 씨가 하시마에 강제연행되어 미쓰비시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에 대한 증언¹²⁾과 하시마에서 죽은 조선인 노동자의 유족이 1991년 한국에서 '端島韓国人遺族會'를 결성하여 미쓰비시를 상대로 '유골의 탐사 및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정우 씨의 경우 뿐 아니라, 평화자료관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강제연행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은 파악할 수 있다. 총 8개의 패널(panel)과 4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패널의 내용을 살펴보면 패널 1 <강제연행 관련 연표>에는 1910년 8월 한일합병부터 1945년까지의 강제연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패널 2 <조선인 노무자 유골의 행방>에는 조선인 노동자 유골 반환에 대한 미쓰비시의 불성실한 대처를 기술하였다. 패널 3 <조선인노동자의 모집 방법>에는 '미쓰비시석탄광업 하시마탄광'이 1920~40년대 동안 다수의 조선인들을 노역시켰는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징용과 강제연행 등으로 노역자 수가 증가하여 1943년에는 조선인 약 500명, 중국인 204명이 강제로 노역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패널 3은 패널 2에서 언급한 1991년과 1992년에 있었던 미쓰비시의 유골반환 거부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유골반환과 사망조선인 노동자의 임금과 위자료 지불 및 사죄를 요구한 사실과 시민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가두서명과 기부활동을 펼친 사실을 기술하였다. 패널 9 <각지의 개요>는 『원폭과 조선

11)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 2010, 참조; 박수경·조관연,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vol.61, 2013, 참조.

12)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hasima.html>(검색일:2015.08.24)

인』을 근거로 나가사키현에 소재하는 12개소의 市와 町の 강제동원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패널 10은 <나가사키현내의 조선인강제연행>이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은 나가사키의 탄광, 병기공장, 조선소, 댐 건설현장으로 보내졌는데, 1945년 8월의 나가사키 시내 조선인 수와 조선인 피폭사망자수를 기술하였다. 또한 미쓰비시 석탄업 사키도(崎戸)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선인 화장기록(212명)을 소개하였다. 하시마의 조선인 노동자 122명의 화장매장인가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유골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기술하였다. 패널 11은 조선인들이 나가사키로 강제 연행된 루트와 귀국 루트를 지도로 제시하였고, 패널 12는 1944년 나가사키현 주요 탄광의 한국인 이입자 수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전후보상 관련 기록물들은 나가사키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하시마 탄광에서 노역한 실태를 중심으로, 피해 조선인들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일본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 기록물은 일본이 조선인에 의한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7월 5일 메이지시대 근대산업시설물의 하나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시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¹³⁾

3. 인권기록물로서의 활용과 특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기록관은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수집한 1931~1945년 동안 일어난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전시의 대부분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전쟁피해 실태와 전후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동아공영권의 허구’라는 주제 전시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평화자료관 소장 기록물 중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어떠한 주제들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3) 하시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한·일간의 갈등으로 인해 등재 결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 대표단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1940년대 지배했던 민족들을 이 곳에서 강제 노역하게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가까스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첫째,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실상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입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평화자료관의 強制連行 코너 <飯場>이 전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코너는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노동자들의 증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평화자료관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¹⁴⁾

.... 탄광에서의 차별은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바다의 조류를 먹었다. 전쟁이 끝날 즈음 특히 심했다. ... 조류라는 것은 다시마·미역·김 등의 해초가 아니다. 인간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돼지도 먹지 않는 것이다. 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탄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였다. ... 쉬고 있으며 일본인 현장 감독이 몽둥이로 두들기고 기절하면 물을 뿌리고 또 때린다...(北松浦郡, 鉄大加勢 炭坑에서 일했던 朝鮮人 男性의 証言)

.... 나는 여기서 여러 번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탄광 노무계는 거짓 계약으로 조선인을 연행 해 와서 힘든 노동을 강제하였다. 하얀 빠지(조선 옷)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완전히 속여 탄광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식사가 주어지지 않아서 배가 고파 매일 울부짖었다. 일 없이 쉬면 즉시 헌병이 격렬한 체벌하였다. ... 당시 15세 정도의 나는 그 끔찍한 광경에 놀라움과 공포에 떨었다.

.... 1944년 말 '동래'에서 100~200명의 조선인 청년이 연행되어 왔다. 그들을 "東萊隊"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얘기가 다르다", "이런 약속은 없었다."라고 해서 3일째 탄광에서 탈출했다. ... 불운하게 그들은 잡혔다. 폭력은 정말 잔인하고 무시무시했다. 반장으로 알려져 있던 지도자들 몇몇은 차가운 물을 뿌려 때리거나 두드렸고, 실신하면 또 물을 뿌려 힘껏 두들겨 그것은 반죽음 상태였다.(北松浦郡, 神林炭鉱의 保健係로 일하던 朝鮮人 女性의 証言)

端島·高島 코너의 「徐正雨 氏 생애」도 강제연행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오카씨는 1983년 서정우 씨로부터 출생에서부터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그리고 원폭피해와 이후 일본에서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채록하였다. 아래 구술은 서정우 씨가 하시마에서 강제 노역한 정황이다.¹⁵⁾

14) <http://www.d3.dion.ne.jp/~okakinen/1kai/syouden.html>(검색일:2015.09.02)

하시마는 높은 콘크리트 절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다뿐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2층과 4층 건물에 넣어졌습니다. 1인 1첩에도 못 미치는 좁은 방에 7~8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외관은 모르타르나 철근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쪽은 너털너털했습니다. 우리는 쌀겨 봉투 자루와 같은 옷을 입고 다음날부터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를 찬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이것저것 명령했습니다.(하시마는 감옥섬)

바다 아래가 탄갱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갱도를 내려가 굴착장에 도착하면, 땅에 엎드려서 굴을 팔 수 밖에 없는 좁은 곳이고, 덥고 고통스러운데다 한편으로는 낙반의 위험도 있고, 이대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콩앙금 80%, 현미 20%의 밥에 정어리를 통째로 구워 으갠 것이 반찬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설사를 해서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쉬면 감독이 와서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구타를 했습니다.(바다 아래 중노동)

위와 같이 평화자료관에서 채록한 서정우 씨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과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에, 일본 내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강제연행자들의 피해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하시마는 일본 식민통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이곳에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인은 당시 경험했던 고통과 좌절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증언자이다. 강제동원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정부나 기업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하는 한국정부도 강제동원 실태파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평화자료관이 수집한 자료는 강제연행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¹⁵⁾

강제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고 미불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¹⁶⁾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자료관이 수집한 구술기록은

1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피해자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 p.17, 2010, 참조.

16) 평화자료관의 기록물은 다양한 자료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박인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선인, 2012.

17) 2000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상고심 진행 중); 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상고심 진행 중); 2012년,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일부승소; 2013년,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2014년,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등이 있다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기록물들이 생산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기록물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⁸⁾

이처럼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증거, 향후 근대 동아시아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가 부인하는 강제동원 등 침략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존재와 노력의 일면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부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다. 처음 평화자료관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후 보상 코너의 일부분이었다. 이후 위안부로 생활했던 姜德景, 金順德 두 명의 할머니와 한국청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金信實 씨가 평화자료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대협과 연대하게 되었고, 평화자료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코너로 운영하게 되었다.¹⁹⁾ 이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가사키 집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일본인 수천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가 보도되었다.²⁰⁾ 아사히(朝日)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8천700여 명이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표면상 아사히 신문이 기사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 논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국들은 평화자료관처럼 일본 내에서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는 단체²¹⁾ 및 개인과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자료관의 활동은 좋은 사례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6005001>(검색일:2015.09.20)

18)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2007;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당꼬 라고요?, 200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에서 편찬한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등의 자료를 거론할 수 있다.

19)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ianfu.html>(2015.09.15)

20)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126202306117>(2015.09.26)

21) 대표적으로 2005년 8월 1일 개관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단일 주제로 전시하는 유일한 일본 자료관으로 민

평화자료관은 2000년 8월 남경대학살기념관과 제휴를 하였다.²²⁾ 평화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난징기념관에서 제공해 준 것이다. 평화자료관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는 난징대학살을 날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일본의 중국 침략의 상징인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자료관은 매년 12월에 남경대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집회를 개최한 후 남경대학살증언집회보고집(長崎と南京を結ぶ集い報告書)을 발간하고 있고, 나가사키의 청년들을 부호방중단(友好訪中團)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의 보고집(日中友好・希望の翼報告書』)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 간의 갈등을 국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I'm The Evidence>²³⁾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²⁴⁾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사이버 역사관>등이 있다. 평화자료관의 활동상은 향후 이러한 관련 기관들의 사업 구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평화자료관의 기록물들은 공공기억이 포함하지 못하는 기억을 보완하는데 좋은 사례이다. 나가사키에서 공공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비롯하여 원폭관련 자료관들은 일본인들의 원폭피해만을 언급하였다. 왜 그 곳에 원폭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에다 고이치로(前田耕一郎)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관장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념관의 목표라고 설명한다.²⁵⁾ 한 개의 원자폭탄의 투하하여 수십만의 생명을 순간 앗아갔으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에, 그는 이곳을 방문하여 핵무기공포의 진실과 전쟁의 비극적 어리석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성스러운 중요성을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전후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낸 히로시마는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한다. 히로시마는 '왜 그러한 비참한 원자폭탄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

간의 기금과 모금을 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22)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nankin.html>(2015.09.31)

23) <http://www.hermuseum.go.kr/>(2015.09.04)

24) [http://www.nanum.org/\(2015.07.04\)](http://www.nanum.org/(2015.07.04));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2. 세계 최초 일본군 '위안부' 주제의 박물관이다.

25) 김준섭,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pp.165~166, 2000.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철저히 외면한다. 원폭자료관의 설립취지는 전시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전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전시내용²⁶⁾

구분			주제	전시내용 및 전시물
원 폭 자 료 관	지 하 2 층	상 설 전 시 실	1945년 8월 9일	· 피폭 전의 나가사키의 도시역사에 대한 설명 · 피폭당시의 회중시계 등 전시
			원폭에 의한 피해실상	· 피폭 망루, 교탑, 우라카미 성당 외벽 등을 대형의 재해 자료를 재현해서 전시 · 나가사키 원폭투하까지의 경과와 피폭한 나가사키 의 거리를 사진 및 영상으로 전시 · 실제 원폭 및 나가사키市 지형을 재현해서 전시 · 열선, 폭풍 및 방사선에 의한 피해현황에 대한 설 명과 유물, 유품, 사진 등 전시 · 구원· 구호활동 등 유물, 사진을 전시 · 나카이타카시 박사의 원폭장애연구 및 구호활동 행적에 대한 유품 및 자료 등 전시 · 피폭자들의 전쟁· 원폭의 재해, 평화의 고귀함을 증언 비디오와 회화전을 통해 전시
			핵병기가 없는 세계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연대기 · 핵병기의 시대로 핵폭탄의 개발역사, 핵병기로 인 한 국제관계의 분쟁, 핵병기 개발· 실험의 피해자들 의 현황에 대한 설명 및 비디오로 전시 · 핵병기 폐기와 평화에 대한 회구를 설명
			비디오룸 (2개)	· 피폭재해, 반핵, 평화, 원폭실험으로 인한 재해 등
	기 획 전 시 실		피폭실상 및 평화	주로 원폭 자료관 수장 자료전 *수시로 교체되고 있음

위 <표-2>와 같이 나가사키 市 피폭 50주년을 기념해서 재개관된 나가사키 원폭

26)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josetsu/index.html>(2015.08.02)

자료관의 전시내용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의 실상과 투하의 경위 및 경과, 핵병기 개발의 역사, 그리고 핵병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알리며, 세계평화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어디에도 왜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일본인의 원폭피해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²⁷⁾ 이처럼 국가가 재현하고 있는 기억과 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기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평화자료관의 기억은 공공기억과는 분명한 선 긋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원폭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평화자료관은 공공기억이 재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존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평화자료관이 관심을 가졌던 대상인 약자 즉 피해자, 국가보다는 개인, 다수보다는 소수 등은 기존 역사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들이었다. 또한 공적 기록인 아닌 개인이 생산한 기록과 구술기록 등 개인의 노력으로 수집한 기록물은 그간 드러나지 있었던 사실들을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기록과 개인의 노력은 그간 입증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인권기록물로서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평화자료관은 1995년 재일조선인의 인권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오카마사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원폭투하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가사키는 원폭투하로 인한 일본인과 일본의 피해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언급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자료관은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들의 피해만을 재현하고 있는 공공기억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평화자료관은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침략한 전시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나가사키에 강제 노역당한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증언 자료가 조사·수

27) 국립히로시마원폭사망자추도평화기념관(國立廣島原爆死没悼平和祈念館)과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廣島平和記念資料館)의 전시 내용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과 차이가 없다. 히로시마평화자료관의 전시내용은 동관 http://www.pcf.city.hiroshima.jp/virtual/VirtualMuseum_e/visit_e/vist_est_e.html, 본관 http://www.pcf.city.hiroshima.jp/virtual/VirtualMuseum_e/visit_e/vist_wes_e.html을 참조.

집되었다. 이는 평화자료관이 로컬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자료관으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전시이다. 또한 일본 내 황국신민화의 실태와 대동아공영권의 이론적 허구를 조사한 전시 내용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상을 알리기 위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 보상 문제를 전시한 코너까지 마련하는 등 일본 최초로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기억에 대항하는 자료관으로서 주목할 만했다.

평화자료관은 국가가 기억하지 않는 사실들을 재현하여 그간 역사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카 씨를 비롯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의 노력, 그리고 기록의 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평화자료관은 관련 피해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나가사키 피폭자와 관련된 주제 기록물들이 포함된다. 이들 기록물들은 인권 기록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역사기록으로서 의의가 있다. 전쟁 상황에서는 개인이 기록 자료를 남기기가 쉽지 않다. 전쟁 피해자들의 구술 기록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간 간과했던 민중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향후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강제동원 당사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에서 평화자료관이 수집한 기록물들은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었다.

셋째,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자료관이 수집한 1931~1945년 동안 일어난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한중일의 수업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7차 개정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사 과목을 신설하였다.²⁸⁾ 이 과목은 기존의 역사교과서 서술 방식이었던 각국사 나열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지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목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를 해결하여 이

28)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10학년 과학과 역사 과목의 시수를 주당 한 시간 늘렸고,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으로써 과목의 시수 보장하였다.(7학년에서 10학년까지) 또한 일반선택교과와 심화선택교과를 통합하고, 다양한 선택교과(매체언어, 동아시아사 등)를 신설하였다.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사건 등 침략전쟁 중 일어난 일련의 가해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근대를 ‘동아시아 각 국 간의 갈등해소와 평화추구’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침략전쟁을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피해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본 평화자료관의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권기록물들은 단순히 전쟁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를 회복을 위한 증거자료일 뿐 아니라 인류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당꼬 라고요?, 2005.
-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2007.
- 김준섭,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 박수경·조관연,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vol.61, 2013.
- 박인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선인, 2012.
-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평화자료관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2010.
-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軍艦島に耳を澄ませば, 2012.